

도시속의 표정있는 건물

Idiosyncratic, Distinctive Buildings Within the City

대담자 / 박항섭(경원대학교수)

설계자 / 김낙중(중원건축)

by Kim Nak-Jung & Park Hang-Sup

일 시 / 98. 3. 13(금) 11:00~

장 소 / 중원건축 소장실



대담광경(왼쪽: 이재훈, 가운데: 김낙중, 오른쪽: 박항섭)

박항섭 _____ 압구정이라는 곳은 이질문화가 접목되어 있는 곳으로 혼잡한 문화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또한 난무하는 표피문화의 시점으로서의 씨네플러스의 대지가 갖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구정문화, 혼성모방의 총체적인 시점으로서의 장소성 이런 것들이 씨네플러스가 갖고 있는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장님께서 씨네플러스라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를 하셨는데, 현재 이 작품은 건축적인 볼거리와 화제가 많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갖는 도시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낙중 _____ 이 프로젝트는 당초 지명설계경기로 진행된 것으로 지명받은 몇 명의 건축가가 작품을 응모한 것입니다. 주어진 대지가 평소에도 익숙했던 지역이었지만, 직접 가보고 주변을 살피는 동안 이 지역이 현대 도시사회가 갖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표출되는 지역이고 건축물 또한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세워져 있으며, 여러 가지가 혼재된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호대로가 끝나는 부분이고 강북에서 진입하는 관문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앞이 통과교통을 위주로 하는 동호대로가 접하고 있어서 상당히 속도감을 주는 머물지 않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거나 안정된 쾌적함과 거리가 먼 이곳을 어떻게 하면 속도를 줄여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이 복잡한 컨텍스트 안에서 이 건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상징성이란 형태도 있지만 이런 도시에서는 물리적으로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호대로라는 거대한 도시구조물과 거기에 왜소한 건축물이 서야 되는데 여기서 관문을 암시하는 랜드마크로서 건축물을 생각하자면 상당한 물리적인 높이도 필요하겠고 이러한 속도있는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접지면에서 어떤 매력적인 공간을 쥐어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과 도로, 모든 인

프라와 모든 도시인들의 삶이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라면 이것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서로 인계돼야 하지 않느냐는데 관점을 두어서 계획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도시의 안에 들어서는 건축이 갖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윤리, 결국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런 건축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축가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의무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박항섭 _____ 이 작품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하는 과정에 있어 배치상의 문제라든가 건축적인 배려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김낙중 _____ 상당히 많은 용도를 요구했고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 출발점에 있어서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지안에 조그마한 가로 - 좁 과장하자면 - 작은 도시의 조직을 하나 다시 대지 안으로 연장하여 외부에서 직접 각 기능으로 동선이 선택적으로 진입이 되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매스를 저층부와 고층부로 구분해 저층부는 극장을 감당하게 했고 고층부는 오피스 및 기타 복합적인 그런 기능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대별했습니다.

진입부는 모두 9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대지내의 가로라든지 도시의 가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되는, 그래서 외부에서 동선을 분산시켜서 끌어들이도록 했습니다. 기존 건물들은 주출입구라는 것을 하나 가지고 그 안에서 거대한 로비를 통해서 일단 실내로 진입해서 각 동선이 흩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로비를 옥외화했고 옥외에 있는 공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박항섭 _____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건축 속에 작은 도시를 조직해 놓은 그런 건축적인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소장님께서 프렛대에서 학습한 프로젝트를 보면 건물과 건물의 사이공간에 벌어지는 휴게시설인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연상되는 듯한 프로그램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프렛대에서 한 작업하고 무슨 연관이 좀 있습니까?

김낙중 _____ 네. 실은 그곳에서 작업을 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시의 틈을 이용한 수직공간입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것이 배제된 공공성을 띤 휴식공간이었고, 또 하나는 도시에 있는 상업시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시설과 그에 대립되는 시설들이 서로 침투해 합해져서 조직처럼 얽혀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 안에서 복합적인 기능들을 조직하고 화해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 또한 대지와 건축물의 여백, 건축의 구성방법에서 공공문화적인 부분과 상업적인 부분을 기능적으로 묶은 것에서는 일맥 방맥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항섭 _____ 그런데 한국적인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여백을 나타낸다는가 어떤 문화적인 것을 나타낼 때, 과연 상업적인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축주를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키는가가 의문시됩니다. 그 점을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 해 나가면서 설득을 시켰습니까?

김낙중 _____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경리라는 형식을 통해서 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다른 것과는 차별화되는 안을 내느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보통 상업건물이 건축주한테 어필을 하려면 1층에 임대료가 높은 부분을 많이 확보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는 건축주가 좋아하는 그런 임대면적이 상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곳은 행인들이 머물기 쉽지 않은 고가도로가 끝나는 부분이고 환경이 산만한 곳이라 행인들을 끌어들이는 건물에 머물게 해야만 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지나 공공통행로 등을 과감하게 할애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받아들여졌고, 안목이 있는 좋은 건축주를 만난 행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항섭 _____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막으면 막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낙중 _____ 그 전에 보행로가 관통된 세 방향 중에서 한 방향을 막아고 해서 중간에 막는 방향으로 그렇

게 추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막자는 부분이 다행히 임대면적이 아니었고 고층부에 들어가는 로비를 좀 넓게 하지는 쪽이었는데 저도 그것까지 설득하기 힘들고 해서 포기하려 했는데 그 시점(아직 막지 않고 유리로 막으려는 상태)에 이쪽 현장에 현대의 회장님이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골재가 드러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길이 뚫린다고. 그런데 막을 부분을 보고 '아! 그러면 이쪽도 뚫지 그래요.' 해서 다시 원안으로 돌아온 행운도 있었습니다.

박항섭 _____ 제가 작년에 맨해튼에 가보니까 시트콕센터의 저층 그러니까 선릉부분이 막혀 있던데...

김낙중 _____ 저는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요.

박항섭 _____ 결국에는 막은 것으로 기억이 돼요. 씨네플러스도 김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켜지기를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조직상 우리나라와 같이 동절기가 긴 곳에서 그런 적극적인 가로가 활용이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저널에 등장하던 간에 김소장님의 드로잉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드로잉 자체가 거대한 공공갈기도 하고 또한 의인화시킨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곡되게 표현된 드로잉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김낙중 _____ 글썄. 그것을 특별히 말하기는 부끄러운 부분인데. 좀 엉뚱한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현 상황들이 얘기되고 또 모던과 포스트모던의 논의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어떠한 틀과 그에 대해 반하는 반들 이런 것에 어떠한 대립관계 형태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틀이 맞느냐 반들이 맞느냐 하는 것은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고 어느 쪽을 믿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어떤 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을 믿는 편입니다, 또 믿고 싶고. 건축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고 고유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이 명증하게 규명될 수 있다는 말하고는 다르지만 규명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축이란 존재가 경외심과 함께 찬미하는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막연한 기대같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감상을 찬란한 빛속에서 꿈대는 모습으로 스케치해 본 것입니다.

박항섭 _____ 한가지 의문시되는 것은 김소장님이 도시의 조직 말씀도 하셨지만 압구정의 좋은 문화건 나

뿐 문화권 간에 그것이 갖는 주변 건물에 대한 이야기거리들도 있는데 실제로 드로잉상에 나타나는 것은 본인의 존재만 나타내기 위한 드로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컨텍스트와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김낙중 _____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표현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갈등은 누구한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시적인 해석 그런 것들하고 때로 상충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지않고 냉철하게 이성으로 풀어가다가 건축가로서 자기도 모르게 표현의지가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 건물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층부라든지 접지면은 물리적인 근경으로서 보행자의 몫이고 원경은 도시의 풍경으로서의 몫이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원경에 대해서는 표현의지를 가지고 제스처를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자위를 하며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박항섭 _____ 용도 복합 과정에 있어서 시각적인 구성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치 보편은 입면의 구성방식이 다양한 커튼월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케이피에프(KPF)식의 구성방식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낙중 _____ 그것은 지적하신 바대로 제가 긍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실질적인 자재나 시스템의 사용같은 것은 자기가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작은 부분의 변화이지만 상당히 깨끗한 유리면 위에서는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은 KPF 작품들을 예전부터 보면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재훈 _____ 원래 정해진 용도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김낙중 _____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 용도는 영화관하고 우리가 보통 보는 아동들이 다니는 오락실이 아닌 일본식의 모든 연령계층을 통틀어서 쓸 수 있는 전자오락실, 그리고 영화산업이나 영상산업에 종사하는 광고회사라든지 또 그런 전문업체들의 소규모 사무실들, 레스토랑,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유흥시설 등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를 위한 몇 개층의 전용 사무실 정도였습니다.

이재훈 _____ 그런 용도들을 형태화시키면

서 어떻게 수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는지요.

김낙중 _____ 그런 용도가 총별로 정확히 주어지면 그 성격을 형태로서 표출을 하고 또 외부 표피에 대한 디자인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이지한 건물, 다양한 콜라주 같은 건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프로그램이 개괄적이었고, 또 앞으로 상당히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저층부, 고층부 두 가지로 매스를 대별했습니다. 그래서 전용 오피스라든지 영상 산업에 관계된 것은 고층 부분에 수용하고 극장 및 기타 유흥시설은 저층부로 수용했습니다. 설계진행, 설계확정, 공사 과정에서 다소 바뀌었지만 그 바뀌는 것을 다 디자인에서 바꾸면서 수용하기는 건축주나 공사하는 측, 예산문제에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학적인 이미지를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첨단공학적인 이미지라는 것도 뭔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젠데 (하이테크 건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실제 하이테크 건물은 우리가 하기에는 저 개인적 능력이나 우리나라 건축산업으로 볼 때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외국식의 하이테크 건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국산 건설자재나 시스템에 대한 산업이 선진국보다는 아직 열등한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하이테크를 흉내낸 그런 뭐 슬릭텍이라고 하나요, 실제로 기술시스템은 아주 컨벤셔널한 것으로 돼서 아쉽습니다.

이재훈 _____ 용도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쭙보면 저층부, 고층부 구별하시고 고층부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형태적인 면이 디자인됐다고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층부의 극장으로 어떻게 보면 극장은 보통 프로그램하고 다른 시설인데 극장이라는 대형 공간을 저층부에서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 있으셨습니까?

김낙중 _____ 저층부에서 객석 부분은 고층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저층부가 인식되는 매스는 측면 도로변에 접해 있는 극장 홀 부분으로 그곳은 아주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보행자하고 홀안에 머무는 사람들하고 시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하였고 또 보행로에서 극장홀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액티비티가 투명하게 감지가 되게 하여 시각적 인지로서 극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의도했습니다.

박항섭 _____ 외부에 구성된 외벽은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김낙중 _____ 재료의 종류는 상당히 최소화했습니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 그리고 재료가 콘크리트, 유리, 철 이런 것이라 그것의 물성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전체적인 디자인을 했고 또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도 전혀 착색이 되지 않은 양면이 투명한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요즘 투명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 차원과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완전 투명이 아니고 한쪽 면에 약간의 컬러가 들어간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건물보다 훨씬 투명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보하고 전장 속의 공간이 인지가 안되도록 불투명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건축을 구축하는 시스템 자체도 다 보여 주는 것이 시스템상으로 더 투명할 것 같아 판을 투명유리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붙였습니다. 뒤의 판이 자세히 보면 다 보이지요.

박항섭 _____ 재료마다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물성하고 존재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인가요?

김낙중 _____ 네. 특히 알루미늄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연발생 알루미늄을 맨 처음 추천을 해서 설계를 시도했는데 그것이 국산자재 생산이 힘들고 코스트도 상당한 차이가 나서 결국은 자연발생 알루미늄 색을 흉내낸 불소수지 코팅을 해서 패널로 썼습니다. 물론 그런 면은 약간 표리부동하지만 그런 컬러를 쓴 것은 그렇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의지 정도로 이해됐으면 합니다.

박항섭 _____ 그럼, 현재 쓰인 것은 전부 국산,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쓰신 건가요.

김낙중 _____ 네. 노출콘크리트, 알루미늄, 유리 이 세 가지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외장재의 전부입니다.

박항섭 _____ 그렇다면 그 문제점들이 접합 부분에서 벌어질 것인데 제가 보기에 김소장님이 의도했던 재료와 재료의 접합부분들의 디테일상의 처리들이 국내 재료로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했을 것 같은데요.

김낙중 _____ 네.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곡면으로 된 저층부의 커튼월이나 바들도 실지로는 많은 직선의 접합으로서 이루어져 있고 그 바를 붙이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재래식이 아니라 원시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곡킹하는 시스템(엔지니어링이 정밀하지 않아서 바시스템의 틈이 곡킹으로 메워진)의 디테일로 상당히 낙후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식(가스켓시스템)으로 바도 유선형으로 경사를 줘서 처리했는데 다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전부

박스형의 바로 대체가 됐고, 여러 가지로 현실하고 절충을 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항섭 _____ 영화관이 지하로 구성되다보면 구조와 설비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점들이 존재했을 것 같은데, 구조나 설비적으로 씨네플러스에서 특이하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낙중 _____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극장을 넣기에 건축면적이 부족해 닥트면적을 최소화시키려고 상향식, 하향식을 섞어 복합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특별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박항섭 _____ 영화관의 프로그램상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영화관하고의 차이 즉 객석하고 영화가 펼쳐지는 장소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낙중 _____ 영화관 안의 시스템은 최근에 지어진 극장이기 때문에 영사실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 극장보다 면적이 꽤 넓은 편이고 영사하는 기기들도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쪽에서 요구했고 양해가 된 사항이라 의자 앞뒤나 좌우 간격이 넓고 의자도 목받침까지 있어 안락한 편입니다. 동선이 외부에서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일단 3~4층으로 올라가 거기서 브리지를 타고 영화관 홀로 들어가는, 완전히 입출구가 분리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항섭 _____ 그렇다면 극장에 들어갈 때와 상영시간이 끝나고 나올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배려하셨습니까?

김낙중 _____ 올라가는 쪽은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비교적 폭이 좁은 계단과 소형 엘리베이터가 2대, 나가는 쪽은 엘리베이터 1대와 넓은 폭의 계단을 준비해 계단이 주출구로 이용되도록 의도했습니다.

박항섭 _____ 씨네플러스의 전체적인 사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아까 소장님이 로비의 벌어지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감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중요한 것이 어떤 2차원으로 펼쳐지는 전통적인 간판의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영화관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들인데 어떻게 배려됐는지요? 제가 보면 가로변의 가로등도 기존과는 다르게 디자인된 듯 한데 전체적 사인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낙중 저희가 현상설계 할 때부터 사
인이나 간판 위치는 정해놓고 디자인했습니다. 그 당시 동호대
로하고 안세병원 사거리쪽에서 걸어내려오면서 건물의 어느 부
분이 원경에서 잘 보이는지 고려해서 사인 위치를 정했습니다.
저층부쪽에 큰 간판이 하나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맨 처음 안을
낼 때는 그 위치가 동호대로와 측면 8m도로하고 만나는 부분
이었습니다만 저층부는 길쪽으로 돌출되고 고층부는 길에서 많
이 후퇴되었는데 후에 위치가 전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속도있게 움직이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볼
수가 없고 대지 안 공지에서 사람이 머물 때 잘 보일 것입니다.
결국 광고판들이 보행자 위주로 된 것이죠. 저희가 맨 처음에 의
도했던 안세병원 사거리쪽에서 내려오면서 보이는 돌출돼 있는
저층부에 계획된 간판이 커튼월로 처리가 되어 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극장이라는 것이 대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인 이전에 어느 극장이 어디 있다 정도는 알고 도시 생활을 하
기에 큰 고민은 안 했습니다.

박항섭 그런데 맨해튼에 있는 브로드
웨이거리라든가 그런데는 현재도 사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의미로 전달되기를 건축가들은 바라지만 그것이 과연 시간
이 지났을 때 의미로 전달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인모
드로 전달될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김낙중 어떻게 보면 맨해튼은 법규하
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마키(Marquee)라는 큰 캐노피가 나와
거기에 영화에 간단한 간판이라든지 영화제목들이 걸립니다. 그
것이 있으면 "아! 저기가 극장이구나" 그렇게 상징처럼 되어 있
고요. 그쪽은 대개 인도를 덮고 마키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또
그것이 허락이 되는 곳이지만 저희는 절대로 인도를 침범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미국식의 캐노피로 상징을 주려면 건물이 그만
큼 후퇴해야 되는데 많은 건축주가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박항섭 밤에 대한 고려는 사인개념에
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습니까?

김낙중 조명계획을 할 때 제가 조명전
문업체하고 감리단계에서 협의했는데, 제가 주문한 것은 밤
에도 이 건물이 인지도가 있고 랜드마크로 작용하려면 상부에
등대처럼 빛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
물에는 상부에 지붕을 암시하는 프레임같은 곳에 조명을 해 주
고 그리고 저층부에서 수직으로 솟아있는 높은 바가 있는데 물

론 이 바가 큰 기능이 있다기 보다는 피리침내지는 통신시설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 바가 빛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나머지는 기능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박항섭 서두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요. 이 씨네플러스의 한국성을 나타내는 접목한 부분들이 일부
차용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며 그것의 의미와 차
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김낙중 글썄요. 한국성이라는 것이 영
원한 과제같은 것인데... 어떤 것이 한국성이고 또 그것이 어떻
게 현대건축에 표출이 되어야 하는가는 모든 건축가들의 영원
한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한테 어떤 갈망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아
무튼 이 건물에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워 저 개인
적인 감상일 뿐이라고 전제합니다. 저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전
면 공지옆에 있는 폴리같은 것이 물론 물리적으로 스케일을 다
운시키고 휴먼 스케일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말 할 수도 있는
데 그것이 입구에 있는 행랑채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구조물을
암시하는 것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부에 표현적인 의도로
디자인된 큰 사각상자나 철골프레임 같은... 그 밑에 있는 매스
를 테라스로 분절시키고 그 매스가 따로 떨어져 보이게 의도했
습니다. 그것이 풍광이 좋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내가 흐르고
거기에 절벽이 보이고 그 위에 정자가 있는 그런 그림같은... 그
런 개인적인 감상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했습니다.

박항섭 그런데 실지로 폴리라고 말씀
하신 부분이 인형으로 가득차므로서 의도하셨던 의미가 반감된
것 같은데요. 즉 그 부분이 비워져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상업
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김낙중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불만입
니다. 공개 공지 부분의 디자인도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벤
취의 위치라든지 공중전화 박스의 크기 등이 스케일을 깨버리
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는 비워있는 공간으로 의도가 됐습니다,
휴게소처럼. 그런데 지금은 진열상품으로 꽉 차 있어서 전혀 다
른 모습이 됐습니다. 그냥 빈 공간의 만남의 장소가 됐으면 행인
들이 머물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상업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
을까 했는데... 결과는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산만한 곳이 됐습
니다.

박항섭 폴리로 올라오는 계단의 폭이
지나치게 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규 때문에 그렇습니까, 좀

큰 것 같이 여겨지던데요.

김낙중 네. 법규에 보면 미니멈 폭이 있고 또 옥외 계단의 단의 높이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계단 폭에서 미니멈으로 한다 해서 90cm정도를 의도했습니다.

이재훈 처음에 현상설계할 때 층수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김낙중 층수에 대한 조건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층수를 현행 법규안에서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상징적이고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의 절대 높이를 확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재훈 그 때 현상 제출한 다른 안들에 대해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김낙중 다른 안들은 제가 예측했던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거의 7층 정도의 높이로 그렇게 들어와서 건축면적을 다 차지하고 공지가 없는. 그리고 동선은 일단 사람들을 1층 로비로 끌어들어서 실내에서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와 레스토랑이고 또 극장이고 거기서 해결하는 식의 해법들이었습니다. 무언가 발상을 달리해 차별화된 안을 만들기 위해 그 당시에는 모험을 한 것인데 다행히 다른 안들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된 안이 됐습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재훈 다른 안들하고는 다르게 12층이 되면서 기준층 바닥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게, 높이 올라가게 된 셀인데 그것이 공사의 경제성이라든지 바닥면적의 적절한 사이즈 측면에서 혹시 건축주가 가졌던 생각같은 것 없습니까?

김낙중 전체적인 건물구성 시스템이 거론된 적은 없고요. 단지 외장재라든지 일부 어떻게 보면 건축가 표현의지라든지 아니면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은 행위를 끌어들이기 위한 공지나 풀리, 이런 구조물들에 대한 할애, 피로도에 대한 할애 등은 거론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야지 건물 전체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소규모 사무실을 수용하는데 최대 건축면적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슬림하게 고층부를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재훈 재료는 알루미늄, 노출콘크리트, 유리 이 세 가지만 주로 사용해서 건물을 지으셨는데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마감재로써 다루기가 좋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알루미늄이라는 재료와 현대건축내지는 앞으로의 건축과 또 공학적 이미지의 그런 것과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갖는 상관성 같은 것이 있는지 특별히 생각해 보셨는지요? 어떻게 보면 60년대 조흥은행 본관 건물도 알루미늄 새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고적인 경향이라고 보기에는 요즘 현대건축이 너무 알루미늄 바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한게 있습니까?

김낙중 물론 유리나 철, 알루미늄을 포함해 금속성 재료가 현대건축 재료로는 익히 다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이테크 건물이라는 공학적 이미지를 주는 건물이라는 것하고 금속과 유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환상일 수도 있지만...산업사회 이래로 첨단과학이라든 기계이미지, 철로 된 것하고 막연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행기라든지 로켓과 같은 것도 다 금속으로 되어 있고, 잠재의식하고도 막연히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훈 재료가 갖는 이미지 측면에서 하이테크하고 연관성을 찾아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재료와 재료의 접합부분에서 그냥 실리곤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알루미늄이나 유리같은 것들을 접합하는 방식에 있어 기술적으로 한 단계 넘어가는 디테일개발 측면에서 혹시?

김낙중 그것이... 같이 노력이 되어 된다고 봐요. 우리 건축 자재산업과 건설산업이 같이 발달을 해야 하고, 물론 건축기도 노력을 하므로써 선진국처럼 진보된 디테일, 명실상부한 하이테크에 가까운 그런 것이 된다고 보는데... 그게 어떤 일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는 성취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훈 리처드 로저스가 채널 포라고 런던의 방송국 설계한 것을 보면 유리와 철 그런 재료들을 디테일로 해결해가며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런던의 선박 만드는 기술 노무자들은 철을 다루는데 있어서 익숙하였고, 그런 시공적인 측면에서 몇 백년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에 건축 현장에서도 철이 도면에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철을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무자의 능력이 리처드 로저스를 있게 한 배경이 된 것으로 봅니다. 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건축산업이 어느 정도 바탕을 이루었을 때 하이테크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기술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건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낙중 저도 로저스의 방송국 건물을 살펴보았는데, 접합부 등이 기능을 넘어서 상당한 장식적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로저스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하이테크 건물의 디테일하고 한국성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그러한 공학적인 이미지의 건물보다 다른 시스템의 건물이 개발되어야 되겠지요. 한국적 입장에서 그것을 흉내내면서 그런 디테일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훈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아까 반자 속을 보여줘서 골조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 벽체의 구조체를 감지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혹시 인테리어를 직접 하십니까?

김낙중 인테리어는 극장홀부분만 기본계획을 할 때 제가 단순 협조자로서 자문하는 입장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디자인을 다 간섭할 수는 없었고요. 단지 너무 많은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지 말아라, 건물 전체의 이미지하고 의도가 이런 거니까, 인테리어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고 쉽고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재훈 감리는 직접 하신 겁니까?

김낙중 네. 솔직히 공사중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낸 이유는... 도면이 많지 않았어요. 건물의 물리적인 구성은 복잡한데 그 디테일을 미리 다 잡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해서, 제가 직접 상주해 감리했습니다. 공사중 변화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해결했습니다.

이재훈 특별히 감리 중에 겪으셨던 문제점이라든지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김낙중 현장소장이 상당히 의욕있게, 깔끔하게 시공하려 해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중간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재료 선택이나 디테일을 쉽게 가려는 경우에도 대부분 역설프트를 했습니다.

박항섭 설계경기 당선작하고 현재 완

공이 된 상태하고 특별히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는지요? 비교적 많은 부분 건축가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지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의도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면을 보면 건축가의 과욕으로 지어졌는데 왜 그렇게 지어졌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김낙중 과욕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별로 없었고요. 불만이라면 건축주한테가 아니고 저 스스로한테인데, 초기에는 하이라이즈 부분 같은 것이 비교적 단순하게 디자인이 됐어요.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표피를 분절시키고 여러 가지 형태 변화를 줬는데 하이라이즈 부분이 하다보니 표피의 장난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쪽에서 돌출되고 또 들어가고, 말하자면 분절된 부분이 내부공간의 성격이나 형태를 표출해주는 것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충분치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되어서 외부에 분절된 형태가 내부 공간에서도 읽어질 수 있었으면 더 완성도가 높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상부에 있는 지붕을 암시한 프레임 밑에 있는 분절된 매스는 두 개층이 보이드가 된 그런 공간으로 제시를 했는데 나중에 막아서 쓰겠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제스처하고는 달리 두 개층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아쉽습니다.

박항섭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라파엘 비놀리가 설계해 작년에 완공된 도쿄포럼을 보니까 기본계획안에서 의미적으로 전달되는 것하고는 다르게 공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일본의 구조기술자라고 할까 그런 엔지니어들이 좀 무던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재기발랄하게 건물 위에 펼쳐져 상당한 당혹감이 느껴지던데 김소장님이 하신 씨네플러스는 한국적인 무던한 건물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김낙중 그렇게 생각해 주면 상당히 고마운데 제 스스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의도된 무던함이면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부분적으로 의도된 무던함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이나 자재산업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안 되었어요. 라파엘 비놀리가 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도 일본 건축가를 통해 들었는데 자기네 엔지니어링 실력에 대해서는 세계 제일인 것처럼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라파엘 비놀리가 일본 엔지니어링 실력과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건물이 돼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박항섭 김소장님은 씨네플러스가 도

시 속에서 어떠한 건축으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까?

김낙중 _____ 이 건물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도시 안에 있는 건물로서 공공성, 어떤 윤리, 도시의 구성요소로서의 자기 기능, 그리고 보행자에 대한 배려, 또 도시의 여러 가지의 조직 페이브릭과 호흡하는 그런 것이 저층부에서 이루어지고 고층부에서는 도시에서의 하나의 표정있는 건물 랜드마크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서 밤낮으로 어떤 자기 표정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로 남았으면 합니다.

박항섭 _____ 김소장님은 다양한 학력과 건축적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건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낙중 _____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한동안 건축에 대해서 콤플렉스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건설회사 시공쪽에서 너무 장기간 일했다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는 못 느꼈지만 건축을 하려고 뒤늦게 30대 후반에 뛰어들어 새로운 분야에서 건축을 시작할 때 너무 알아야 될 것이 많았고 또 건축이 단순하게 적당한 기능과 적당한 아름다움을 가진 건물이라는 단순한 해석에서 점점 이해가 깊어갈수록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윤추구가 큰 가치인 기업의 정서에 젖어있다가 건축가 마인드를 이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력이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콤플렉스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겠다는 좋게 이야기하면 건축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증같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같은 것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건축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의 문제인데, 자기가 얼마나 건축을 귀하게 생각하고 - 마치 종교와 같이 - 그것을 향해 얼마나 경외심을 갖고, 건축의 어떤 고유한 부분이나 존재에 대해서 - 작게는 재료의 존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자기가 진실로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도식적 프로그램이나 방법론, 기술, 조형의 조작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이재훈 _____ 씨네플러스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배경은...

김낙중 _____ 아 그것은 건축주가 지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불란서의 유명한 방송국 중에 캐널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네는 시네마에서, 그리고 플러스는 아마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훈 _____ 이름은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지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이름이 처음에 있고...

김낙중 _____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간에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멍청한 이름을 제안했어요. 요즘 흔히 쓰이는 무슨 마을, 무슨 마당 이런 식으로. 영화마당이라든지 뭐 볼거리라든지. 조금은 멍청한, 그리고 편안한 이름을 원했는데 결국 지어지고 보니까 캐널플러스에서 유추해서 씨네플러스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재훈 _____ 그런데 이름이 먼저 있었으면 아마 설계하실 때 시네마하고 플러스된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을 구상하실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었고, 또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건축주의 입장에서 이걸 극장이지만 플러스된 이미지들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씨네플러스라는 이름이 이 건물에 맞다고 생각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부여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김낙중 _____ 그럴 수도 있겠지요.

박항섭 _____ 씨네플러스의 건축적인 성공과 상업적인 성공을 한 번 더 기대하면서 이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